

YONHAP

YEARBOOK

국토·기상·인구

국토	99
기상	101
인구	103

2016
연합연감

국토·기상·인구

국토

■ 위치와 영역

한국은 유라시아대륙 동단에서 남으로 뻗어 나온 남북길이 약 1천100km(육지부), 동서 평균 폭 약 300km의 반도와 부근에 산재한 섬 3천300여 개(남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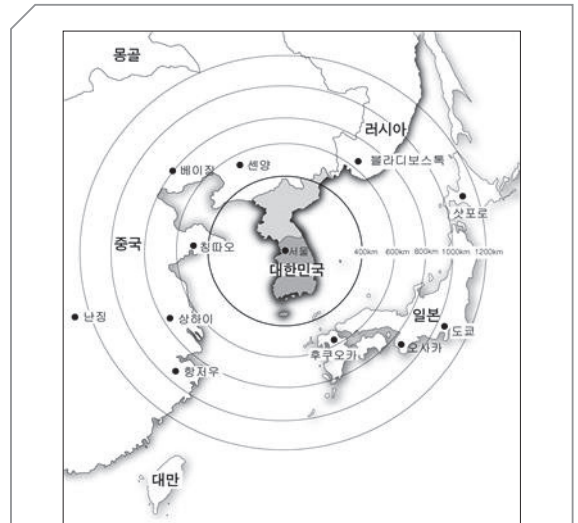
경위도로 표현하면 남쪽 끝은 북위 33°06'4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맨 남쪽), 북쪽 끝은 북위 43°00'42"(함북 온성군 유포면 풍서리 맨 북쪽)이며, 서쪽 끝은 동경 124°10'51"(평북 신도군 비단섬 맨 서쪽), 동쪽 끝은 동경 131°52'22"(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도 맨 동쪽)로서 남북 약 10°, 동서 약 8°의 범위다.

2014년 12월 31일 남한 면적은 10만284km²로 전년 10만266km²(2013년 말 기준)에서 18km² 증가했다. 10년 전에 견줘서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안쪽 : 2.9km²)의 230배인 667km²가 늘었다.

국토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8.8km², 여의도 면적의 3배)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매립준공(4.5km²) 때문이다. 또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는 등 관리되지 못한 토지가 정비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늘었다.

2014년 말 기준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만9천29km², 강원 1만6천826km², 전남 1만2천309km² 순으로 면적이 넓고, 세종 465km², 광주 501km², 대전 539km² 순으로 면적이 좁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천820km², 강원 인제군 1천645km², 경북 안동시 1천522km² 순으로 면적이 넓고, 부산 중구 2.8km², 대구 중구 7.1km², 인천 동구 7.2km² 순으로 면적이 좁았다.



• 한반도의 위치

- * 최북단 : 함북 온성군 유포면 풍서리(북위 43°00'42")
- * 최남단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위 33°06'45")
- * 최서단 : 평북 신도군 비단섬(동경 124°10'51")
- * 최동단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도 (동경 131°52'22")

• 한반도 길이 : 남북 약 1,100km(동서 평균 폭 약 300km)

- 남한 : 100,284km² (2014년 말 기준)
- * 2013년 말 기준대비 18km² 증가
- * 10년 전 국토에 비해 여의도(2.9km²)의 230배인 667km² 증가

• 해안선 길이 : 16,323km(도서포함)

- * 남한 12,733km, 북한 3,590km

• 연간강수량 : 1031.7~1839.4mm

- * 중부지방 : 1187.1~1464.5mm
- * 남부지방 : 1031.7~1839.4mm

행정구역별 국토면적

(단위: km²)

시·도별	2012	2013	2014
전국	100,188.1	100,266.2	100,283.9
서울특별시	605.2	605.2	605.2
부산광역시	769.7	769.8	769.8
대구광역시	883.6	883.5	883.5
인천광역시	1,040.8	1,040.9	1,047.6
광주광역시	501.2	501.2	501.2
대전광역시	540.1	540.2	539.3
울산광역시	1,060.2	1,060.5	1,060.7
세종특별자치시	464.9	464.9	464.9
경기도	10,172.3	10,172.6	10,172.7
강원도	16,790.2	16,829.8	16,825.6
충청북도	7,406.2	7,407.2	7,407.1
충청남도	8,204.0	8,204.5	8,213.7
전라북도	8,066.6	8,066.4	8,067.2
전라남도	12,270.0	12,303.9	12,309.0
경상북도	19,028.8	19,029.0	19,029.3
경상남도	10,534.9	10,537.3	10,538.0
제주특별자치도	1,849.3	1,849.3	1,849.0

자료: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주: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미등록된 접경지역의 미복구 면적 43.73km² 제외

■ 산 지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 산지로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성지형을 이루며, 남한의 태백산맥과 북한의 남령산맥이 지형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다.

산지는 해발고도 1천m 이상의 높은 산이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서 지형의 등줄기를 이루어 동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이르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서해안에 이른다. 이들 산지는 오랜 침식으로 북부의 개마고원과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중위면 또는 저위면의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 하 천

하천은 지형 때문에 황해 및 남해 쪽으로는 큰 하천이 완만히 흐르는데 반해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길이가 짧아 급류가 많다. 강수량이 여름에 많고 겨울에는 적어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세계 다른 하천에 비해 큰 편이다. 따라서 수력발전과 각종 용수공급에 불리해 하천의 중·상류에 댐을 건설해 생긴 인공호수가 많다.

■ 평 야

우리나라의 평야는 화강암의 차별침식으로 형성된 낮고 평평한 구릉성 침식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도시가 발달하고 있다. 대하천 하구에 형성된 범람원과 삼각주는 대부분 중요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평야로는 김포평야, 안성

평야, 논산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김해평야 등이 있다.

■ 해안선

우리나라의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동·서·남 삼면의 해안은 각각의 특색이 있다.

동해안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의 급사면이 그대로 해저와 연속되어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우며, 사구(砂丘)와 석호(潟湖)가 발달해 있고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반월형의 사빈(砂濱) 해안 등이 동해안을 특징짓는 경관이다.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2천300개 이상의 섬이 집적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다도해를 이룬다. 서해안은 연안의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조차(潮差)가 매우 커서 곳곳에 넓은 간석지가 형성돼 있다.

■ 도 로

우리나라의 도로망은 전국 주요 도시 및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기본 골격을 이루는 간선망을 형성하고, 각 도내의 지역 간을 연결하는 지방도·군도·시가지 내 도로망이 상호 연계돼 유기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도로 총연장은 10만5천673km이며, 도로 포장률은 91.6%이다. 도로등급별로는 고속국도 4천139km, 일반국도 1만3천950km, 특별·광역시도(구도 포함) 2만154km, 지방도 1만8천58km, 시·군도 4만9천373km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연장은 2000년 8만8천955km에서 약 1.2배 증가했으며, 포장률은 81.6%에서 10%포인트 높아졌다.

■ 수 자 원

우리나라는 기후구분 기준에 의하면 아시아 몬순지대에 속한다. 연평균(1978~2007년) 강수량은 내륙이 1천270mm이고, 제주도를 포함하면 1천277mm이다.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 807mm의 약 1.6배에 해당하지만 1인당 연 강수량은 2천629m³로 세계평균 1만6천427m³의 1/6에 불과하다.

이웃 일본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은 1천690mm로서 한국에 견줘 풍부하며, 1인당 연 강수량도 4천993m³로 한국보다 많다.

주요 유역별 평균 강수량은 한강 1천260mm, 낙동강 1천203mm, 금강 1천271mm, 섬진강 1천457mm, 영산강 1천340mm, 동해안 1천270mm, 서해안 1천272mm, 남해안 1천496mm, 제주도 1천683mm이다.

전국 연평균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심한 편차가 나타난다. 남해안은 약 1천400mm 이상의 강수분포를 보이지만, 낙동강 중부는 1천100mm 이하인 과우지역이다. 또 대관령 주변 산악은 1천400mm 이상의 강수량 분포를 나타내 주변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 국토 이용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 계획 후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토지 이용제도를 체계화하는 한편,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농 통합 등 도시권의 광역화에 부응하기 위해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 중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군은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해 관할구역에 대해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집행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전 국토이용계획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고, 각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4년 12월 31일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도지역(10만6천102km²) 중 농림지역이 46.5%인 4만9천345km², 관리지역은 25.6%인 2만7천155km², 도시지역은 16.6%인 1만7천597km²,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3%인 1만2천6km²다.

도시지역(1만7천597km²)은 주거지역 2천595km²(14.7%), 상업지역 328km²(1.9%), 공업지역 1천142km²(6.5%), 녹지지역 1만2천662km²(72%), 미지정 870km²(4.9%)이고, 관리지역(2만7천155km²)은 계획관리지역 1만2천51km²(44.4%), 생산관리지역 4천934km²(18.2%), 보전관리지역 1만123km²(37.3%), 미세분 47km²(0.2%)이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만7천593km²)보다 4km² 늘어난 1만7천597km²(전체의 16.6%)이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21만538명 증가한 4천704만8천1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인 도시화율은 91.66%로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도시화율은 2009년(90.8%) 이후 5년간 0.86% 증가에 그치는 등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매년 1% 이상 급증하던 추세와 달리 2009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마련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기상

2015년 우리나라의 연 평균기온은 13.4°C로 평년보다 0.9°C 높았다. 전국 4개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관측 값을 측정한 1973년 이래 최고 2위를 기록했다. 연 평균 강수량은 948.2mm로 평년 대비 72% 수준이었다. 1973년 이래 최소 3위를 기록했다.

■ 기온

2015년 전국의 연 평균기온은 13.4°C로 평년(12.5°C)보다 0.9°C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18.8°C, 평균 최저기온은 8.7°C로 평년보다 각각 0.7°C, 1.0°C 높았다.

서울의 연 평균기온은 13.6°C로 평년(12.5°C)보다 1.1°C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18.7°C, 평균 최저기온은 9.3°C로 평년보다 각각 1.7°C, 0.7°C 높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과 서울의 연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2000년대 평균 최저기온은 9.1°C로 1970년대에 비해 1.2°C, 1920년대에 비해 3.1°C가 높았다.

2015년도에 지점별 관측 이래 극값의 최고 순위 기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일 평균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한 지역은 의성(8/6일, 30.0°C), 구미(8/7일, 30.3°C)였고, 일 최고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한 지역은 영덕(8/4일, 38.2°C), 상주(8/6일, 36.6°C), 의성(8/7일, 38.7°C)이었다. 일 최저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한 지역은 장흥(12/10일, 9.6°C)이었다.

■ 강수량

2015년 연 평균 강수량은 948.2mm로 평년(1천307.7mm) 대비 72% 수준을 기록했다. 1973년 이래 최소 3위였다. 강수일수는 평균 112.6일로 평년(103.5일)보다 9.1일 많았다. 전국이 마른 장마, 태풍 빈도 감소 등 강수량 부족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겪었다.

1시간 강수량 30mm 이상 일수는 평균 0.6일로 평년(1.7일)보다 1.1일 적었다. 일 강수량 80mm 이상 일수는 0.8일로 평년(2.3일)보다 1.5일 적었으며, 일 강수량 150mm 이상 일수는 평균 0.0일로 평년(0.4일)보다 0.4일 적었다.

서울의 연 강수량은 792.1mm로 평년(1천450.5mm) 대비 54.6%였다. 강수일수는 104.0일로 평년(108.9일)보다 4.9일 적었다. 1시간 강수량 30mm 이상 일수는 1.0일로 평년(3일)보다 2일 적었다. 일 강수량 80mm 이상인 날은 1일로 평년(3.2일)보다 2.2일 적었다. 일 강수량 150mm 이상인 날(평년 0.6일)은 없었다.

장마는 평년에 비해 기간이 약간 길었지만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239.8mm로 평년(356.1mm)보다 적었다. 장마 기간 강수일수는 17.4일로 평년(17.1일)보다 약간 많았다.

■ 태풍

2015년 태풍은 총 27개가 발생해 평년 평균(1981~2010년)인 25.6개 보다 많았다. 이 중 4개의 태풍(제9호 찬홈, 제11호 낭카, 제12호 할룰라, 제15호 고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예년에 비해 태풍의 내습 강도나 출현 빈도가 낮았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및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다. 제12호 태풍 할룰라가 북상해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한편 고온 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다.